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단식 23일, 단식을 중단하며 ①

2018년 12월 25일(화) 성탄절에 나는 23일째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끊여준 죽을 먹기 시작했다.

여건이 되면 25일이나 27일정도 단식을 하고 싶었으나, 아쉬움을 머금고 단식을 중단했다. 병원을 떠나서 자택에서의 단식은 너무나 위험하고, 병원에서 장기간 단식도 민약의 불상사를 걱정하는 담당 의사의 부담을 더 이상 줄 수가 없었다.

나의 의지와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 자신과의 투쟁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투쟁을 했다.

내 생애에서 사법시험 준비할 때, 고창군 선운사 참담암(檀堂庵)에서 30일간 단식을 한 이후, 이번 23일간의 단식은 두 번째 장

기간 단식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 생애에 이런 장기간의 단식은 힘들어서 다시는 못할 것 같다.

1987년 9월 2일 서울 성동구 능동에서 한국단식연수원을 개원해서 중앙일보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대학신문에 유료 광고를 내면서 찾아온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수시로 7일간 단식을 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했지만, 근래는 의지가 약해서인지 단식을 못했다.

단식 16일째에 호남신문에 칼럼을 썼다. 단식 기간 생각나고 특이한 사실을 적고자 한다. 농성이든, 단식 투쟁이든 한 장소에서 24시간 머물면서 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고, 편의적 여건인데,

나는 국회 본관 계단 앞 민주평화당 천막당사, 국회본관 3층 현관 로텐더룸, 자택, 국회 앞 사무나, 합법대학교 한강성삼병원, 상계버문정형외과 등 여섯 곳을 전전하면서 23일간 단식을 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시련은 더욱 세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견디고 이겨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자이다.

대학 2학년 때, 정릉 산 속에 있던 남곡선원(南谷禪院)에서 남곡선(南谷山) 선생에게서 배운 운기조식(運氣調息)의 호흡법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견디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운기조식은 기(氣)를 호흡과 함께 온 몸에 순환시키는 중국 소림사(少林寺) 달마(達磨)대사의 신비에 쌓인 세수역근경(洗髓易筋

經)에 있는 심신 수련법이다. 호흡과 기를 회음혈(會陰穴, 항문)에서 시작하여 관원혈(關元穴,丹田)을 거쳐서 우리 몸의 앞쪽의 정중선(正中線)을 따라 눈 속까지 올라가는 임맥(任脈)과 미추골(尾椎骨, 꼬부나뼈)에서 시작하여 척추(脊椎) 속을 따라 올라가다가 뇌 속으로 들어가 정수리로 나온 다음 이마와 콧바를 거쳐 뺨 및 목 속으로 들어가는 독맥(督脈)을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운기조식의 내공법(內功法)이 아니었다면 나는 견디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김영삼(56세) 통일민주당 총재는 전두환 군사독재시대, 1983년 5월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주기 되는 날,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범 석방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하여 단식 8일째 병원에 입원하고 23일간 단식을 했다. 김대중(66세) 평화민주당 총재는 1990년 10월 8일, 지방자치 전면 실시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하여 단식 8일째 병원에 입원하고 13일간 단식을 했다.

나는 김대중 총재 단식 11일째, 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 민원부국장으로 있으면서 단식 전문가로 초대 받아서 총재실 뒤의 비밀실에서 30여 분간 독대하고 단식 자문을 해드린 일도 있다. 참 어둡고 힘든 시절이었다.

社說

정신질환자 선제 대응조치 필요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과거 난동행위 등으로 112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 입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2 신고가 접수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절차를 밟는 기준을 정한 응급·행정입원 등의 강제 입원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는 매뉴얼을 개정하면 범죄 징후가 뚜렷한데도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력범죄 전과자의 재방이 22건(37%)이었다.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27%)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6건(10%)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통해 예후를 보였지만 강제 입원 등의 치료 조치가 없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의사협회와 임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명 '입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행정입원 등의 강제 입원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는 매뉴얼을 개정하면 범죄 징후가 뚜렷한데도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력범죄 전과자의 재방이 22건(37%)이었다.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27%)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가 6건(10%)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통해 예후를 보였지만 강제 입원 등의 치료 조치가 없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선제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罔談彼短 罔談彼短. 그물 망, 말씀 담, 저 피, 짧을 단. 罔談彼短. 罔: 자기(自己)의 단점(短點)을 말하지 않는 동시에(同時)에 남의 잘못을 욕하지 말아야 함.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재래시장 화재예방 생활화 해야

날씨가 쌀쌀해지고 월동기로 접어들면서 제철 음식이 많아지는 전통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장은 물품과 정보가 교환되는 고유기능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무료를 삶을 달래주는 소통 기능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소풍 공간이다.

그러나 좁은 통로와 출입구, 노후된 시설, 밀집된 점포, 겹겹이 쌓인 가판대 등으로 인해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화재로 전개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는 77건, 사상자 4명, 103여여명의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전체 화재 발생의 절반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부주의, 원인미상, 기계적 요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시장 상인들에게 화재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고 주기적인 자체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즉시 초

기 진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통로가 협소하고 주변 장애물이 많으면 소방차가 도착해도 진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상인들 스스로가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지속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무안소방서에서는 전통시장 자위소방대를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과 관

심이라 할 수 있다. 영업을 종료한 점포들은 귀가하기 전에 전기, 가스 등을 반드시 차단하여 전열기구 등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하며, 유사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시장 내 무질서한 좌판이나 적치물을 정비하고 사전에 소방통로를 확보함은 물론 주기적인 화재예방 방송과 야간 자율순찰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전통시장이 항상 추억의 공간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안전센터장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Convergence) featuring two women and the slogan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our position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 Cultural Exchange Foundation.